

PUBLIC ART IN SMART CITY

그리마네사 아모로스(Grimanesa Amorós) (BREATHLESS MAIDEN LANE) 2014 Time Equities Art in Buildings, Financial District, New York, US 25x18x18 ft Photo: Grimanesa Amorós Studio

SPECIAL FEATURE

SPECIAL FEATURE I
스마트 시티 안에서 공공예술의 역할: "스마트(smart)" 그 너머를 꿈꾸며_김인설

SPECIAL FEATURE II
스마트 시티의 공공미술_한은주

SPECIAL FEATURE III
언택트의 시대, 스마트 시티에서의 예술과 공공성_심소미



1. 라파엘 로자노헤머(Rafael Lozano-Hemmer) 〈Atmosphonia〉 2019 International Festival, Manchester, United Kingdom Photo: Mariana Yañez
 2. 그리마네사 아모로스(Grimanesa Amorós) 〈GOLDEN WATERS〉 2015 Soleri Bridge Scottsdale Waterfront Canal Project, Arizona, US 40×135×18ft © Grimanesa Amorós Studio
 3. 그리마네사 아모로스(Grimanesa Amorós) 〈HEDERA〉 2018 BRIC Celebrate Brooklyn Festival Prospect Park, New York, US 40×40×30ft © Grimanesa Amorós Studio



라구축보다는 통합 플랫폼과 창의적 공간창출에 초점을 맞추어나가도록 로드맵을 짜고 유도해 나가고 있지만,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로 짜인 정책 관련 인적 구성이나 의사결정과정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여전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토목사업처럼 흘러가고 있다. 겉모습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통신망을 깔고 설비구축이나 하는 사업자들이 지자체 스마트 도시계획의 로드맵에 개입하고 있어 결국 80년대 건설사업이나 다를 바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탄생된 스마트 시티 요소 기술은 시민들에게 전혀 공감을 얻기 힘들고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의 흉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없어 공공미술과 도시공간을 논의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해 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과 누적된 이야기가 뒤섞여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작동하는 곳이다. 도시는 컴퓨

터 기기장치가 아니다. 스마트 시티와 공공미술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회의 낮은 인식수준과 철저한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4차산업에 대한 준비도가 43개국 가운데 25위에 불과하다는 수치도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도 해외의 다양한 접근과 시도들을 보고 고민하여 빨리 이러한 패해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낙후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우리 도시에서 인터넷 속도마저도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막 수립해 나가고 있는 요즘 공공미술의 관한 깊은 내용을 국토부가 인지하고 지자체가 세밀하게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스마트 도시계획에 담기를 기대해 본다. ■■■

글쓴이 **한은주**는 공간건축에서 실무 후 영국왕립예술대학원에서 도시공간에서의 위치기반 인터랙션디자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Siggraph 2009'에서 건축과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작품을 발표했으며,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초대작가다. '2017 한국건축가협회 특별상', '25in 세계건축상(WA)', '아메리카 건축상(AAP)', '2018 한국공간문화대상', '2019 한국공간학회연합회 초대작가상', '레드닷어워드 본상', '대한민국 스마트도시건축대상'을 수상했다. 'SPACE' 편집장, 공간건축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소프트아키텍처의 대표로 예술적업, 글쓰기, 혁신디자인공학 등의 작업을 통해 도시와 건축을 실천하고 있다.